한마음으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패기와 믿음이 있어야

☞ 19면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얼마나 잘 아시고 계십니까. 배움도 있고 상식, 교양, 학식이 있어서 모두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전에 산에 있을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축지법을 하고 수없이 육신 무예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느냐.' 하고 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막대기 하나를 짚고서 시도를 해 봤죠. 그랬는데 그 후에 잠깐 사이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얘깁니다만, 여자가 하는 일 있죠? 그냥 그 추운 데 앉아 있었더니 말이에요, 돌하고 나하고 옷하고 그냥 붙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춥기는 하고 그래서, 아주 까마득하게 보이는 저 너머 집에서 불빛이 반짝거리는 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축지법을 한다면 저 건너 집을 갈 수 있을 텐데….' 하구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나자마자 뒤따르는 마음이 '어허, 이것은 내 육신 하나에 관한 건이지 육신이 아무리 축지법을 해서 저 집을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는 몸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시점을 한번 넓혀 보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야, 한생각에 의해서 컴퓨터를 쓰고 있고 한생각에 의해서 지금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한 개인의 축지법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와 같죠. 그래서 '아차! 나의 이 생각이 이 시점에서는 참 잘못된 생각이로구나. 앞으로는 못 갈망정 뒤로 물러선다면 말이 되나?' 하고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으니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 골짜기 골짜기를 다니며 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거죽에는 얼어붙고 그래서 흙을 파내고 파내서 요만한 돌 하나를 캐서 얼음을 깨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옷을 싹 벗고선 빨아서 꼭 짜서 입으니 그게 그냥 얼어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지 두 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버린 몸, 하하하….

여러분도 좋은 옷을 입고 조심조심 가다가도 뭐, 흙이 튀거나 비를 맞거나 그런다면 '에이그, 어차피 버린 옷, 버린 몸!' 하고 그냥 맞고 가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차피 버린 몸!' 하고서 있었더니 부처님께서 불쌍하게 보셨던지 양지에 있는 산소로 끌고 가서 그 밑에서 하루를 지내면서 그렇게 잘 말렸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그런 것도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싸움을 하고 나는 못 산다, 산다 하고 애쓸 때에 그러한 뜻이 참고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제일 조건은 뭐냐? 내 주인공의 안테나. '주인'이라는 건 축을 말하고 '공'이라는 것은 프로펠러와 같이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살아나가시는 데에 고정관념과 고정된 행과 고정된 말과, 고정되게 듣는 거와 고정되게 만나는 거와 고정되게 가고 오는 거와 고정되게 먹는 거와 그렇게,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정된 것이 있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모든 게 고정됨이 없습니다.

>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뺀 거와 같습니다.
> 그냥 갈 수는 없죠?
>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루 온종일 그렇게 놓고 가면서도, 고정됨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공했다는 걸 알면서도 여러분은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주인공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자 공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혜능 선사가 이런 말을 했죠? 오조 홍인 선사가 밤중에, 삼경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는 말이나 했나요? 주장자를 탕 탕 탕, 세 번 쳤었죠. 그러니까 벌써 알고서 삼경에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금강경』을 강설하시는데 육조 스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죠.

네 가지 조건 말입니다.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어떻게 알았으리까.' 이런 말이요. 이 중에 청정이라는 자체가, 바다가 깊어서 모든 물이 바닷물로 다 모이는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구정물 깨끗한 물 뭐, 고름물 핏물 다 한데 합쳐서 거기에 모이는 거. 모이는 그것도 아니라고 해서 젖는 거. 허허, 똥물에도 젖고 핏물에도 젖지 않습니까? 그걸 청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본래자성불이 청정함을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생멸이 없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일체 갖추어 가지고 있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본래자성불이 움죽거림이 없이 들이고 내는 줄 어찌 알았으리까.' 이 네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고정관념도 없고 어떤 것도 없이 여러분은 그대로 본래 자성, 바로 신이며 본래자성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래자성불인데 그 본래자성불 가운데에 바로 중생들이 수없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여자 남자가 둘이 아니요, 동서가 둘이 아니요, 세상이 전부 둘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 뜻을 아신다면 내 몸속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한마음으로 돌리면서, 깔보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아상 부리지 말고, 살생을 일부러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실천해 가십시오. 그러면 이런 계율들을 일부러 지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 지혜롭고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써,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회사에서나 사회에서나 위로는 충성을 다하고 아래로는 통솔력이 있어서 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손을 쩍 벌려서 다 안아 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를 가져야만이 우리 이 마음이, 요 지금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다 회전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 당신이시여! 당신도 나고 나도 당신이라니 얼마나 좋은가?' 하면서 화목하게, 즉 말하자면 파워를 일으키지 않고 회전을 해 줄 때에 내 몸도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몸을 가졌으니 마음도 건강해져서 일하는 것도 능률이 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능력이 있어서 위로는, 부모 조상들한테는 묵은 빚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빛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에 비로소 원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심력은, 보는 것만도 도가 아니고 남의 속을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과거의 일을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고 오고 가는 것이 없이 오고 가는 것도 도가 아닙니다. 그 오신통도 놓고 나와야 바로 원통력을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바깥으로 나오지 않으면 굴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타의에서 구하는 그 기복! 그것은 이익을 하나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만, 요 몸뚱이가 있을 때 요것만이 나라고 하지 마세요. 한 나무로 비유한다면, 저 가랑잎이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파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내가 죽는 게 아니요, 그 많은 이파리가 바로 내 형제 내 부모, 모두가 나 아님이 없는 한 나무의 한 이파리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싸운다면 한 나무의 한 이파리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불법이라는 거대하고 광대무변한 우리의 이 마음 하나가, 수억을 죽이려 해도 죽일 수 있고 수억을 살리려 해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도법이, 바로 중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생각을 잘하셔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때는 자기 내면 세계에 주인공 안테나를 탁 세워 놓고 '보고 듣고 하는 오신통이 모두 여기에 관련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이 안테나를 세우지 않으면 세균이나 유전성이나 영계가 들어와서 내 집이 빈집인 줄 알고 맘대로 왕래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안테나는 바로 자동적으로 버릴 건 버리고 들일 건 들이게끔 해서 내 몸과 내 가정과 사회를 튼튼히 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테나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현시대를 잘 내다보십시오. 텔레비전이나 전화나 모든 게 안테나를 세우지 않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이 허공에도 길이 있고 생명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왜 그냥 뜨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 허공에 생명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그냥 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도, 또는 그 뭡니까? 저, 화산이 일어나는 것도 그런 생명체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일체가 지수화풍의 바탕으로 인해서 미생물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생명들이 조성됐고, 그 조성된 생명들로 인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하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뚱이가 나왔으면 칼을 뺀 거와 같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모르고 그냥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깨치지 않았어도 주인공의, 즉 말하자면 한마음의 안테나를…, 몸뚱이로 봐서도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의 여래의 집이에요. 내 집만이 아닙니다. 한마음의 집이죠, 이게. 여러분 몸뚱이가 한마음의 집입니다. 그래 한마음의 집에서 그 한마음으로 한번 내디딜 수 있는 패기와 물러서지 않는 믿음과 그런 것이 있다면 역력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는다는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내 몸에도 만약에 간이 아프다 그러면 소장이 대장더러 하는 소리가 '여기가 이렇게 파워가 일어나고 고장이 났습니다.' 하고 누진으로 신호를 올리는 거라고요. 신호를 올려서 나를 알게 하는 거죠. 내가 그걸 알았으면 조치를 해야죠. 대장이, 선장이 말입니다. 그런데 선장이 아픈 걸 알면서도 금방 대치를 못 해요. 왜? 모르니까요. 이것은 의학이라도 심성의학입니다. 사람들이 과학적인 것을 찾아도 심성 없이는 과학도 의학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없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 몸뚱이도 움죽거려서 왔죠? 마음이 있으니까 차도 끌고 다니지요? 마음이 있으니까 일체 만법을 응용하고 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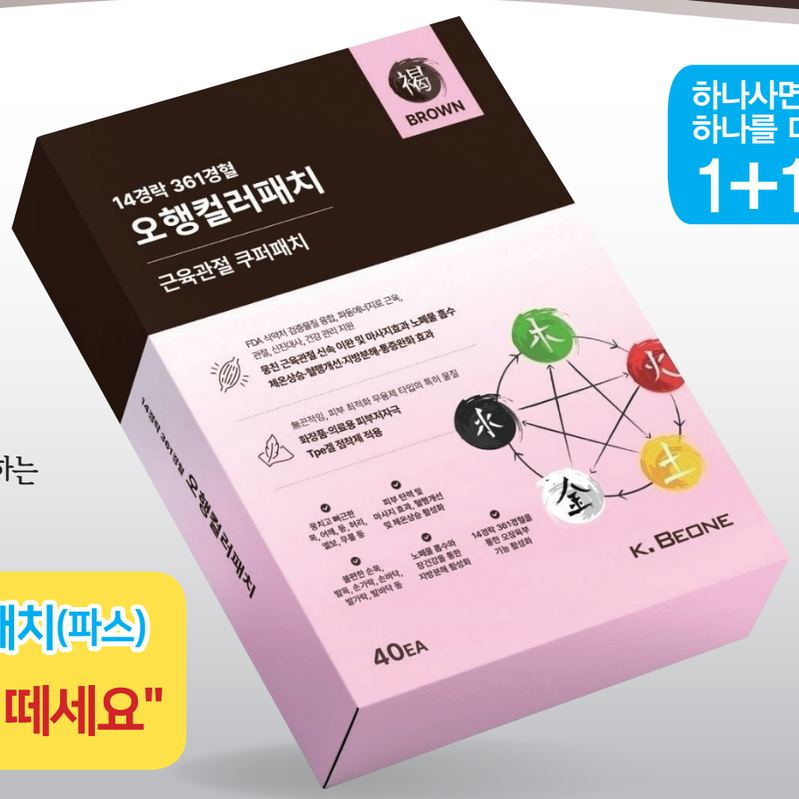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8년 7월 3일 국내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